

농산부산물로 천연항생제를 만든다

- 과제명 : 농산부산물 활용 항생제 대체제 및 기능성 물질 개발
- 담당 : 양돈과 김상호 041-580-3454

소비자는 안심, 축산농민은 부담 감소

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입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것이 항생제 사용이다. 우리나라의 가축용 항생제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사용량이 많다.

우리 원은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했다.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사료이다. 이 사료를 먹이면 가축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 증체량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양계농가에서 한 달간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, 증체량은 3.8~7.3% 증가했고 닭고기 불량률은 절반 정도 감소했다. 특히, 이밖에 개발한 사료는 뽕나무 부산물, 포도껍질이나 포도씨, 또 양과껍질 등을 이용한 것으로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.



뽕나무 부산물, 양과껍질 등 농산부산물로 만든 천연항생제

